

아트인컬처
January 2014

ANNUAL REPORT



윤명로: 정신의 흔적

3. 26~6. 2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윤명로의 화업 50년을 총망라한 개인전.
1960년대 앵포르멜 추상회화 시기부터
1970년대 <균열>, 1980년대 <얼레짓>,
1990년대 <익명의 땅>, 2000년대
<경재예찬> 등의 연작을 10년 주기로
정리했다. 그의 작품은 걱정과 분출,
성숙과 판조의 끝없는 변화를 보여 준다.



강요배

3. 27~4. 28 학교재갤러리
제주도의 풍경 속에 서려 있는 탐라의
신비를 화폭에 기록하는 '제주의 화가'
강요배. 그가 5년간 제작해 온 회화 작품
40여 점과 함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긴 드로잉을 전시했다.



금은보화: 한국 전통공예의 미

3. 28~6. 2 삼성미술관 리움
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
전통 공예품의 정수를 보여 준 기획전.
국보 9점, 보물 14점을 비롯해 한국
금속공예품의 황금기인 낙랑시대 등의
화려한 걸작을 한데 모아 재질의 특성,
장인의 세밀한 기술력을 부각시켰다.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4. 11~10. 6 대림미술관

40년간 책과 종이에 열정과 노력을
쏟은 세계 출판계의 거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의 개인전. 짐 다인, 다이아니타
싱, 에드 워세 등의 현대미술 작가들
비롯해 칼 라거펠트와 에르메스 등
패션계와 함께 만든 책을 한 자리에 모아
그의 '출판예술'을 총체적으로 살폈다.



정소영: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4. 13~5. 12 구슬모아당구장

정소영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실질적인 우위에 있는
자연의 지질학적 변화에 주목한 공간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천천히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과 급변하는 도시의 시간을
동시에 담은 설치물을 통해 시간을
거스르는 경험을 제공했다.



더 완벽한 날: 무담 룩셈부르크 컬렉션

4. 13~6. 23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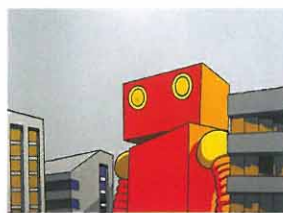
2006년 룩셈부르크에 개관한
무담미술관의 소장품을 아시아 최초로
소개한 공동 기획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후보시절 연설을 소재로 한
실비 블로세의 작품 제목을 차용한 이
전시는 참여작가 23인의 작업에 담긴
'유토피아'를 조명했다.



리엄 길릭: 다섯 개의 구조와 뱃노래

4. 17~5. 22 갤러리인

초기 'yBa' 대표작가 중 한 명인 리엄
길릭의 첫 한국 개인전. 미니멀한
알루미늄 조각 작품과 공간 벽면에
영국의 노동가를 헬베티카 폰트로 적은
텍스트 작품 등 갤러리인의 공간에 맞는
신작을 선보였다.



Dream Society

4. 20~5. 26 문화역서울284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후원 프로젝트의 첫 전시.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로, 기업과 예술의 융합, 경계
없는 예술 창작을 후원한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미래학자 룬프 엔센이
말한 꿈과 이상이 구현된 사회를
의미한다.



기울어진 각운들

4. 23~6. 30 국제갤러리

딱 맞아떨어지는 운율이 아닌, 흥미로운
엇박의 각운을 드러내는 기획전. 2관
전시장 내 설치된 기울어진 벽은
화이트큐브에서의 실험적인 공간 연출에
따른 불안정한 간섭을 보여 준다. 객원
큐레이터 김현진이 기획했다. 참여작가는
문영민 차재민 정은영 등 총 7인.



모빌리티의 꿈

4. 25~5. 24 갤러리팩토리

이동성(Mobility)을 주제로 한 기획전.
김종범, 권용주, 홍보라, 워크온워크의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연구와 협업 과정에 중점을 두어 전시의
내용과 작품을 기획 초기에 정하지 않고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 공동체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오늘날의 풍경을
보여 준다.



하정웅컬렉션: 격동기의 혁신 예술

4. 30~5. 26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 소장된 하정웅
컬렉션 대표작 200점을 바탕으로 8개의
시도립미술관이 각 미술관 특색에 맞는
전시를 선보였다. 첫 번째 전시를 기획한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사에서 소외됐던
재일교포 작가와 일본 작가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삶의 풍경을 되돌아봤다.
전시는 두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됐다.
첫 번째 <역사의 흔적>에서는 인간
삶의 궤적이 만들어 내는 역사의
면면을 담은 작품을 소개하며, 두 번째
<기억의 유산>에서는 당대의 삶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곽덕준 김석출 김인숙 등 11인의 작가
100여 점이 전시됐다. 컬렉터 하정웅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9800여 점의 미술
작품과 역사 자료를 기증했다.